

외규장각 의궤 145년 만의 귀환

김 창 훈*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에 보관돼있던 외규장각(外奎章閣) 약탈 도서를 우리나라로 운반해 오는 일이 2011년 4월14일부터 시작되어 5월 27일까지 2주 간격으로 네 차례에 걸쳐서, 파리에서 우리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날라옴으로써 모두 마무리됐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은 반환 도서가 손상되지 않도록 큰 목재 유물상자에 안전하고 완벽하게 잘 포장하고, 우리 측은 이를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무료로 두 번씩 번갈아 가며 정중하게 수송해 왔다.

이로써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¹⁾ 때 강화도에서 프랑스 함대가 약탈해 간 우리 문화재 중에서 외규장각 도서 297권이 145년 만에 마침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정부는 처음에는 도서가 귀환하는 4월 14일 큰 환영 행사를 계획했으나, 프랑스 측을 고려하여 행사를 조촐하게 줄이고, 대신 앞으로 외규장각 도서를 소장관리하게 된 서울국립박물관이 6월11일 박물관과 인천 강화군의 복원된 외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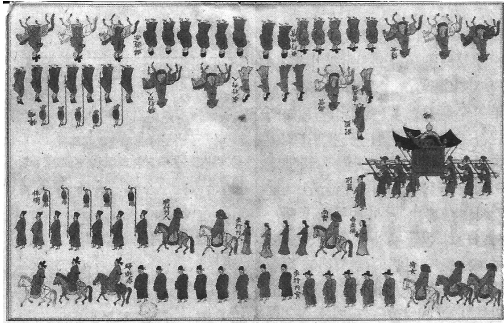
각 건물 앞에서 ‘도서반환 고유제(告由祭)’ 등 환영 행사를 크게 한 다음, 7월19일부터 9월18일까지 ‘외규장각 의궤귀향특별전’을 열고, 또 10월에 강화에서 특별 순회전을 개최기로 했다.

외규장각 도서 297권 가운데 294권이 모두 조선왕실의궤(朝鮮王室儀軌)이다. 의궤는 왕실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과정과 내용을 그림과 글로 기록한 보고서 형식의 책인데, 내용뿐만 아니라 표지와 종이의 질, 정장, 선명한 글씨와 그림 등 조선 후기 서적 문화의 백미(白眉)이며, 우리 ‘기록 문화의 꽃’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에 돌아온 의궤 중에는 임금이 볼 수 있게 최고급으로 제작한 어람용(御覽用) 의궤 30권과 한국에 전혀 복본(複本)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본 8권이 포함돼 있다.

외규장각은 1782년 정조(正祖)가 왕실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왕실도서관인 규장각(奎章閣)의 분관(分館)이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해군이 강화도를 습격하면서, 외규장각에 보관돼 있던 6400여 권의 책 중 사료적 가치가 높아 보이는 340여 권과 왕

* 전 주 필리핀대사



영조와 정순 왕후의 결혼식을 기록한 『영조·정순 왕후 가례도감의궤』 중의 한 장면. 외규장각 의궤 중 프랑스에만 있는 유일본 30권 중 하나다.

-문화재청 제공

실족보(王室族譜), 문집(文集), 지도(天下輿地圖), 족자(簇子), 옥책(玉冊), 갑옷, 투구 등 10여 종의 문화재를 대포, 소총, 금·은괴 등과 함께 약탈해갔다.

위와 같이 약탈해간 우리 문화재 중에서 외규장각 도서들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75년이였다. 이 도서관 직원으로 근무하던 한국 출신 서지학자(書誌學者) 박병선 박사(83·여)가 프랑스 내 도서관과 박물관을 비롯하여 해군부 본부까지 20년 넘게 찾아다니며 목록을 뒤졌으나 아무 흔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고 박 박사는 1975년 파리 근교의 BNF 베르사이유(Versailles) 별관의 파손도서 창고에서 중국 서적으로 분류되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우리 외규장각의궤를 결국 찾아냈던 것이다.

박 박사 덕에 100년 이상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던 외규장각 도서의 소재를 알게 된 우리 정부는, 서울대와 규장각의 건의를 받아들여 1991년 프랑스와의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외규장각 도서가 일종의 ‘전리품’으로 이미

자기네 국내 재산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를 돌려줄 수 없다”고 나와, 협상은 처음부터 난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3년 9월 방한한 프랑스의 프랑와 미테랑(François Mitterand)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재 반환 요구는 모두 거절했으나, 한국의 요구는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응하기로 했다”며 의궤 한 권을 본보기로 전달했다.

이것은 당시 한국의 고속철 차량 선정을 놓고 독일, 일본과 치열한 수주(受注) 경쟁 중이던 프랑스가 TGV 수출을 위해 한국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이란 해석이 유력했으나, 우리 국민들은 이와 관계 없이 “역시 프랑스는 문화국이라”며 의궤의 반환을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곧 이뤄질 것 같았던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직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반환 협상이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했다. 그러다 2000년 방한한 자크 쉬라크(Jaques Chirac) 프랑스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외규장각 도서의 2001년까지 반환’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 외규장각 도서에 상응하는 문화재를 프랑스에 제공한다”는 조항이 우리 국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 합의는 2007년 파기되고 말았다.

그 후, 정부는 여러 방안을 놓고 다시 검토한 끝에 “외규장각 왕실의궤 297권 가운데 1993년 돌려받은 1권을 제외한 296권을 모두 ‘대여 전시 형식’으로 돌려받되, 대여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하는 ‘사실상의 영구 대여’를 받고, 대신 한국의 국보급 문화재를 프랑스에 대여하여 유명 박물관에서

전시한 뒤, 예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문화재를 또 다시 대여해 교환 전시토록 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그러나 2009년 1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이 한국의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2007년 2월 제기한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에 대해 “취득 당시 상황이나 조건은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국가재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그 후, 전문가들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는 ‘법률적 해결’을 찾기 보다 ‘정치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는 2010년 3월 프랑스 정부에 외규장각 도서의 ‘일반적 대여방안’을 새로 제안했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측이 ‘갱신 가능한 대여방안’을 제시하고 나옴으로써 종내 협상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양국 관계 발전에 역점을 둔 박홍신 주불대사가 새로 파리에 부임한 이후, 우리 측이 ‘사실상의 반환’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구대여’라는 용어를 포기하고 ‘일반대여’라는 방식을 추진하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박홍신 대사와 협상 실무책임자로 프랑스에 유학, 불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완벽한 불어를 구사하며 주불대사관에 두 번째 근무하는 유복렬 참사관(여)이 문화재의 반환을 무조건 반대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프랑스 외무성 측을 끝까지 설득, ‘상호대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대여’라는 협상안을 종내 관철시키는 데 성공하는 큰 일을 해낸 것이다.

박 대사는 사실상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조항까지 합

의문에 넣으려고 했으나, 프랑스 측이 난색을 표명해 11월에 있을 양국 정상회담에서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²⁾ 프랑스 대통령이 “사실상 돌려받을 의사가 없다”는 구두 표현을 하는 선에서 막판 쟁점을 마무리했다.

G20 서울정상회의가 성공리에 막을 내린 2010년 11월 12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외규장각 도서를 5년마다 임대 계약을 갱신하는 사실상의 ‘영구대여 방식’으로 반환한다”는 데 극적으로 합의를 했다. 이것은 프랑스 국내 사정과 한국의 실리를 적절하게 절충해 얻어 낸 절묘한 외교적 성과로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돌려받을 의사가 없다”며 ‘사실상의 영구(永久)반환(restitution)’임을 분명하게 약속함으로써, 의궤의 소재가 밝혀진 후, 35년 만에 그리고 20년간이나 끌어온 어려운 협상이 마침내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양국 대통령의 합의에 대하여 이번에도 의궤를 소장하고 있는 파리 국립도서관의 사서들이 “외규장각 의궤의 반환은 다른 나라들의 문화재 반환 요구를 부추기게 된다”며 또 반발하고 나왔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우리에게도 지난 17년 동안 “의궤를 한국에 돌려줘야 한다”고 변함 없이 주장해 온 미테랑 정부에서 문화장관을 지낸 자크 랑(Jaques Lang) 같은 현(現) 하원의원 외에도 뱅성 베르쥬(Vincent Berger) 파리7대학 총장과 장-루 살즈만 파리13대학 총장과 같은 ‘친한파 문화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11월18일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있는 일간지인 ‘르몽드(Le Monde)지에 기고문을 올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이 이런 합의를 양국간의 오랜

갈등에 중지부를 찍고 문화적 지식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역사적 행동으로 양국 외교의 큰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지원받던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한 몫을 하고, 또 프랑스 외교부가 "이번 대역은 유일하고 예외적인 경우이며 다른 문화재의 대여나 반환에 관련된 전례가 되지 않는다"고 뜻을 박고 나오으로써, 다행히도 프랑스 측의 반발과 반대 여론이 많이 수그러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계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에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요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규장각 도서도 '반환' 또는 '영구대여 보장'을 문서로 얻어야 했다"는 강한 불만이 나왔으나, 외교계에서는 대체로 프랑스가 문화재를 양보할 수 없는 1급 공공재산으로 간주해 온 데다, 문화재 반환 문제를 놓고 현재 여러 나라와 갈등이 있는 만큼, "명시적인 반환 대신 실제적 반환을 얻어 낸 것이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한·불 양국 정상이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관한 2010년 11월 합의의 후속 조치로 2011년 2월7일 프랑스 파리에서 박홍신 주불대사와 뿔 장-오르티즈(Paul Jean-Ortiz) 프랑스 외교부 아태국장장은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으로 돌려주기 위한 '조선왕조 왕실의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공화국 정부 간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에 따라 우리의 외규장각 의궤 296권이 4월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모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 합의 과정에서 프랑스 측 제의에 따라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으로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2015~2016년에 갖기로도 합의를 했는데, 이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의 하나로 "한국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도서 중 '일부'를 다른 국보급 문화재와 함께, 프랑스의 유명한 루브르박물관(Musée de Louvre)과 같은 곳에서 전시한다"는 데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번에 합의된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우리 고전문화를 프랑스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우리 외규장각 의궤는 14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프랑스에는 아직도 중국 명대(明代)의 아시아 지도인 왕반(王伴)의 '천하여지도'를 비롯하여 왕에게 올려진 옥으로 만든 책인 옥책, 족자 7점, 갑옷, 투구 등 43점의 우리 문화재가 그대로 남아있어, 앞으로 그 반환이 우리가 두고 두고 풀어야 할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됐다.

2011년 2월7일 서명한 한·불 양 정부 간 합의문 제4조에 따르면,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의궤들의 대여는 유일한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서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 규정은 앞으로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 이외의 피약탈 문화재는 일체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지금으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나머지 외규장각 문화유산의 반환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국력을 계속 배양하고 이번과 같이 조상들의 유산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외교적 노력을 현명하게 경주한다면, 우리나라

라의 국력 신장과 함께 한·불 관계 증진에 따라 어느 날이든 남아있는 우리 문화재를 되찾아 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번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 떠돌고 있는 우리 문화재가 아직도 14만 점이 넘으며, 그 중 6만여 점이 일본에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 문화재청은 이번 기회에 불법 반출된 해외 문화재 환수를 전담할 특별팀(team)을 신설하여, 불법 유출이 확인된 것들에 대한 환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프랑스로부터의 이번 도서 반환이 앞으로 우리의 다른 해외반출 문화재의 환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45년 만에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를 환영하는 행사가 예정했던대로 6월11일 서울 경복궁과 병인양요 당시 의궤가 보관되어 있던 강화도 외규장각 터 등 두 곳에서 옛 궁중 의식으로 성대하게 거행됐다.

경복궁에서 열린 ‘외규장각 의궤반환 환영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위해 일시 귀국한 의궤 반환운동의 주역인 재불학자 박영선 박사를 만

나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먼지에 쌓여 있던 것을 찾아냈고, 꾸준히 귀환을 위해 노력해 주셨다”고 크게 치하했다. 그리고 기념사에서 “오늘을 시발점으로 흠어지고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다시 찾아오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프랑스 문화계의 최고 원로로 1980, 90년대 프랑스 문화장관을 지내고 17년간이나 이번 도서 반환을 시종일관(始終一貫)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마지막까지 사르코지 대통령을 설득하는 등 우리 도서 귀환의 프랑스 측 최대 공로자인 자크 랑 현 하원의원도 친한파 학자인 뱅성 베르쥬 파리7대학 총장과 함께 서울까지 와 이번 환영대회에 참석하여 “한국 국민이 오늘 의궤 귀환을 축하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번 대여는 장기 귀환입니다. 앞으로 프랑스 정부가 바뀌어도 대여는 계속 될 것입니다”라고 사실상의 반환임을 다시 한번 자신있게 강조했다.

이 환영 행사에 이어 이번에 반환된 외규장각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7월 19일부터 두 달 동안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특별전’을 열어 이들 도서를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외교**

註

1) 1866년(고종3년) 프랑스 군함 7척과 약 600명의 병력이 강화도로 쳐들어왔다. 이들은 얼마 전 프랑스인 선교사 9명을 처형한 것을 빌미삼아 배상금과 책입자 처벌, 그리고 프랑스와의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원군은 의용군을 모집하여 프랑스군을 격파,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강화도를 점령한지 한달 만에 프랑스군은 퇴각하면서 모든 관아(官

衙)에 불을 지르고 외규장각의 도서 345권과 금·은괴 19상자 등 많은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이 사건을 병인년에 일어났다 하여 ‘병인양요’라 한다.

2) 프랑스 정치가(1955~), 파리10대학 졸업, 변호사, 내무장관(2002~2004, 2005~2007), 재무장관(2004~2005), 23대 대통령(2007~)